



오늘의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_ 로마서 8장 27절

오늘의 주요기사

- 2-3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 4-5 청소년숲 여름수련회

- 6 교회사용설명서
- 6 청년리더일기

- 7 십자말풀이
- 8 총회장목회서신



부모의 소감에서 자신의 소감으로

이번호에는 유아숲과 청소년숲의 여름사역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유아숲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청소년숲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소감을 써주었습니다. 유아숲 친구들은 아직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우니 당연히 부모님이 소감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청소년숲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모님 없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소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유아숲과 청소년숲의 여름사역 소식을 읽으며, 부모님의 품에 안겨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신앙 주체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훌쩍 자라 있는 아이들처럼 각 사람의 신앙도 나이와 상관없이 이러한 변화를 거치는 것은 아닐까요? 유아숲과 청소년숲의 여름사역 소식을 읽으며 나의 신앙은 어느만큼 자라 얼마나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아기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더 친근하고 편안해진 교회와 예배

작년에 태어나 갓난아기였던 희서가 어느덧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되어 무척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아기이기 기도 하고 낮을 많이 가리는 시기라서, 많은 친구,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뮤지컬을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주변 언니 오빠들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하며 즐겁게 참여하였고, 또 아기부에서 정성껏 준비해주신 다양한 촉감놀이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튿날 주일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과 함께 밤하늘의 별 무늬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나눠주신 만화경이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억에 남았는지 만화경과 컬러링북의 그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외치더니, 저희가 같이 따라서 말해주면 “엄마함! 아빠함! 희서함!” 외치며 저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이후 희서는 교회라는 곳과 예배에 더 친근감을 갖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찬양에 맞춰 춤도 추려 하고, 친구들과 선

생님들과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아직은 어린 우리 아기의 신앙을 위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주시는 것을 보며 놀랐고 감동이었으며, 부모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많이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기 수준에 맞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촉감 재료와 놀잇감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식사와 간식 등 여러 환경에서 아기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세한 것 하나 하나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도와 수고로 애써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린 아기일 때부터 이런 은혜의 시간을 희서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김민정 성도(김희서 엄마) / 아기부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영아부

두 번째 여름성경학교, 앞으로도 자라날 아이들의 믿음

이번 2024년에 유아숲 성경학교를 두 번째로 경험하는 저희 가족은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공유해주신 찬양과 말씀을 새기며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작년 첫 번째 성경학교를 참여할 때와 다르게 부쩍 성장한 우리아이와 유아숲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커가는 아이들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믿음을 키워가는 아이들에게 배울 때가 참 많은데 이번 성경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성경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앙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은 저희 부부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어인 “믿음의 사람 나예요”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으며, 아이가 배우고 실천한 말씀들을 가족의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앞으로도 계속 자라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이번 성경학교에서의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유아숲 성경학교 일정이 끝난 후에도 선생님들이 수고롭게 촬영해 공유해주신 성경학교 활동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던 일정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해맑은 표정으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해 감사와 사랑을 가슴 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와 보내는 한 순간 한 순간이 귀하지만,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오랜 시간과 무엇보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해주셨기에, 성경학교 기간은 저희들에게도 더욱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어린이 성경 학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로 기도하겠습니다.

김동원 집사, 이아영 집사(김유현 부모) / 영아2부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유아부

아이들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

올해 친구의 권유로 보조교사로 갔던 유아부, 어느새 담임이 되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아이들 모든게 낯설었던 저는 어쩌면 이번 성경학교 주요인물인 아브라함과 달리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건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믿음과 확신보다는 의심과 의문만 가득했던 저에게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 나예요!'라고 외치며 그런 고민과 걱정은 필요 없다는 듯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함께 하며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암막 텐트 안에서 빛나는 작은 별들을 보며 행복해하고, 직접 형광별을 그리며 밝게 빛날 모습을 기대하며, 아이스크림과 함께 휴식을 만끽하고, 어려운 장애물을 두려움 없이 뛰어 넘어가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 모든 모습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가다보면 한발 한발 내딛기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나의 길이 맞는지 의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불평하기보단 기쁨과 믿음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며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외침이 그런 상황에 처한 모두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나예요!"

설연우 교사 / 유아2부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반짝이는 눈망울로 따라온 유아숲 친구들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년차 유아숲 연합 여름성경학교에는 귀염둥이 막내 아기부 동생들부터, 영아부, 유아부, 가장 형님인 6~7세 유치부 친구들까지 참여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나예요!'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모두 함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신나고 은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학교 첫날에는 중예배실에서 유아숲 가정의 모두 함께 참여하여 유아숲 선생님들께서 힘써 준비하신 '저 별을 세어보아라'라는 아브라함 뮤지컬을 보고 반짝반짝 별뿔을 흔들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각 부서별로 흠뻑 젖어 연령에 맞는 활동을 하며 믿음의 사람을 배워나갔습니다. 유치부 형님들은 담쟁이 여름영화관, 야광 별자리판과 별망원경 만들기, 그리고 체육활동과 같은 4개 센터 활동을 하며 믿음의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이는 말씀을 들으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두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는 은

혜 중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위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여름성경학교의 모든 시간들을 반짝이는 눈망울로 따라가는 유아숲 친구들과 이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의 헌신을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주신 손길들과 오랜 시간 준비해주신 유아숲 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4년 유아숲의 비전인 "나는 기쁨이에요!"(눅2:52)와 같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더불어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사로 봉사하여 작은 씨로 숲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기쁨 나눌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원선 교사 / 유치1부



청소년수련회
중등부

팝콘 오락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다!

청소년수련회 팝콘트리 중등부는 7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팝콘 오락실' - 피스캠프 - 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홍천 가람리조트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여한 14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팝콘 오락실에서 같이 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구 - 선생님들과 관계를 쌓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함께한 학생들 모두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친구들과의 시간에 몰입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는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팝콘이들이 '팝콘 오락실' 에서 함께 놀며 맛본 하나님 나라 경험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되고, 경계를 허물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 대해 더 알 수 있었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세요"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 중1 -

☺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유 없고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재미도 찾고, 친구도 찾고, 하나님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중1 -

☺ 사실 나는 이기적인 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가장 많이 기도로 고백했던 것은 "이제야 베품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다. 기도제목들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실 나조차도 놀랐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나는 단연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끼며 은혜받았다. 그와 동시에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들 느끼고 얻은 수련회라 더욱 내겐 특별했고 신선했던 경험이 될 것 같다.

- 중2 -

☺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핸드폰이 없어도 즐겁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중1 -

☺ 예배로 위로와 은혜 많이 받고 같이 놀면서 '하나님 나라' 를 새삼 느낀 것 같아 좋았어요.

- 중1 -

☺ 주위에 지지해주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들이 많으니 혼자 힘들어할 필요 없고, 함께 나누면 힘든 것이 덜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과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 중2 -

☺ 교회에서의 나와 일상의 내가 괴리감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느낀 이유를 찾고 해결할 방법을 알았고, 캠프에 참여한 친구들과 교제하며 서로에게 위로받고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중3 -

☺ ...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뻐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물놀이, 즐거운 활동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저녁 집회와 '셀러브레이션' 이었다. 반복되는 일상, 공부와 시험 스트레스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2일차 저녁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고, 다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엄청난 행복과 평화를 느꼈다. 평생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이었다.)

- 중3 -

☺ ...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힘들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울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 저의 인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중3 -

아래 QR코드를 통해 중등부
여름 캠프 후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회
고등부

<에필로그 : 우리의 모험이야기>

청소년수련회 비전트리 고등부는 7월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잃어버린 P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1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과 함께 흥천 가람리조트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참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2박 3일을 느림하고 멋지게 보낸 것에 대해 진심 가득 담아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잔치로 만들어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청소년들,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동안 모든 면에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선생님, 기도로 함께해주신 부모님과 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련회 이후 펼쳐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심어주신 다양하고, 고유한 'P'를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수련회에 있는 동안 아무 걱정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두 전도사님들의 멋진 모습에 반할 뻔하기도 했네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청년, 장년 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1 -

아무리 미션스쿨을 다녀도 채플시간에 눈치보면서 예배 드렸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기억에 남는다

- 고2 -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살아가던 저는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오래 기도했던 시간이 꽤 길었음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없고 수많은 고민에 힘들어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갔다 온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보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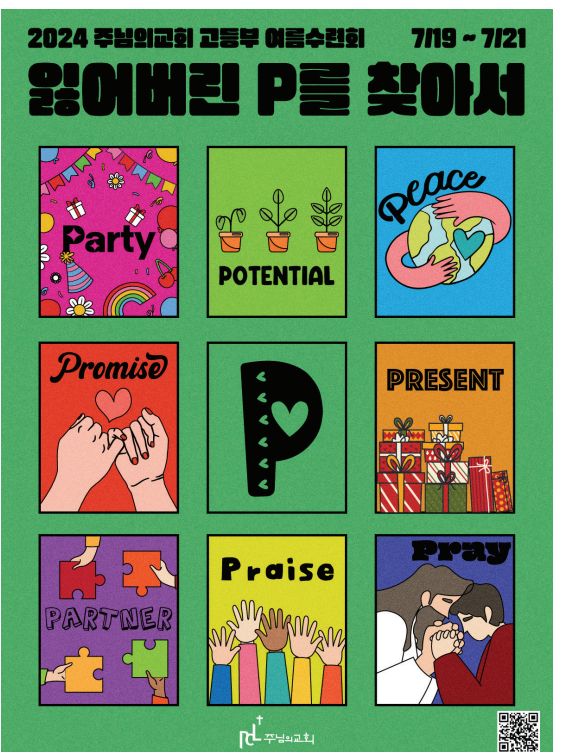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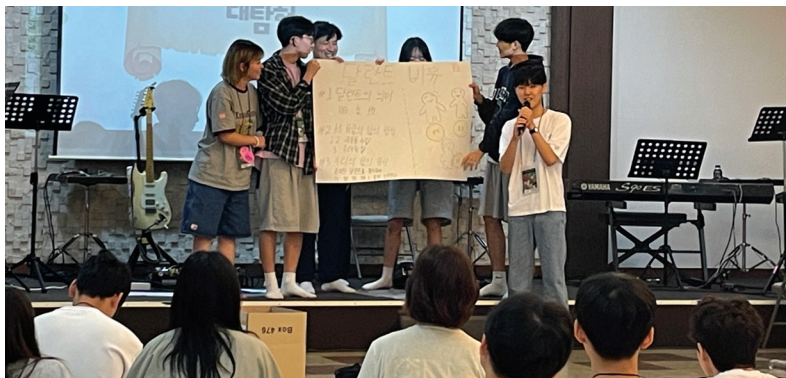
었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겁먹던 저는 용기있게 도전하는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찬양할 때 느꼈던 그 기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해도 웃음이 지어지고 또 한 번 경험하고픈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가 올거라고 했지만 수영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 우리가 떠나는 날에 단수가 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며 분명히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고2 -

이번 고등부 여름수련회 '잃어버린 P를 찾아서' 주제는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자기 반성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찾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허용하신 인생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어떤 경험이든 주어진 은혜와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깊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

- 청년교사 -

아래 QR코드를 통해 고등부
여름 캠프 후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용설명서⑤

예배위원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 주보 제일 마지막 면에 보면, ‘다음주 예배위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다음주 주일예배에서 기도, 성경봉독, 봉헌을 담당하는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배위원’이란, 이분들과 같이 예배의 한 순서를 맡아 소임을 다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또한 예배의 순서를 맡지 않더라도,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배당 집기 관리와 교인 안내 등을 맡아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넓게 보아 이분들도 예배위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위원의 순서나 자격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에서 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하는 공식적인 예배위원은 기도, 성경봉독, 봉헌의 순서를 맡습니다.

주일예배의 경우, 대표기도는 대부분 시무장로와 은퇴장로가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새로 항존직이 된 안수집사와 권사는 1~3부 예배 가운데에서 한 차례 대표기도를 맡습니다. 4부 예배의 대표기도는 안수집사가 순번을 정하여, 수요일예배의 대표기도는 권사가 순번을 정하여 맡습니다. 절기나 기념일 등 특별한 경우 외부 인물이 대표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봉독은 서리집사가 담당하며, 교구별로 순번을 정해 맡습니다.

봉헌은 각 예배마다 안수집사와 권사가 한 명씩 순번을 정하여 담당하며, 순번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 연간 일정을 수립하여 지정합니다. 청년부 등 각 예배 단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식적인 예배위원을 정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비공식적인 예배위원’으로는 교회의 제직사역

조직인 목양위원회 예배분과위원회 소속의 예배부·안내부(1·2부)·성찬부·세례부·새벽기도부·중보기도부·할렐루야찬양대·영어예배부가 있습니다. 또한 음악분과위원회의 호산나·시온·샬롬·임마누엘 찬양대와 찬양지원부, 주오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예배부는 강단을 중심으로 대표기도자, 성경봉독자, 봉헌자를 관리하고 안내하며, 성찬위원 편성도 맡습니다. 안내부는 교인들의 예배 참석 과정을 안내하며, 안내부를 도와 안수집사(2, 3부)와 권사(2부)가 각각 순번을 정하여 예배 안내를 담당합니다.

성찬부는 성찬용 집기와 성찬을 준비하며, 세례부는 세례식을 준비하고, 새벽기도부는 주중 새벽기도의 진행을 담당합니다. 중보기도부는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렐루야찬양대는 찬양을, 영어예배부는 영어예배의 진행을 담당합니다. 찬양대는 각 예배마다 찬양을 맡으며, 주오오케스트라단은 3부 예배에서 연주를 담당하고, 찬양지원부는 찬양대와 주오오케스트라단을 위한 집기 등의 준비를 담당합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예배위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예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임무를 대함에 있어 솔선수범과 함께 겸손과 헌신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예배위원은 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하는 소중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가다듬고 시간에 맞추어 미리 예정된 시간에 참석하여 기도로 그날의 소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안내위원 등은 자신이 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밝은 미소와 부드럽고 공손한 자세로 지정된 위치에서 교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함글함글

청년리더일기

리더, 주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사람

겨울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첫 셀모임을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장맛비를 맞으며 셀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를 마치며 셀모임을 돌아보니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서 셀원들에게 다가가갈 수 있었고, 주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 모두 말씀하셨기에 셀모임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큰 사명을 가지고 셀리더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년부는 나이에 따라 ‘비전힐’, ‘드림힐’, ‘조이힐’로 나뉘는데, 올해는 그중 가장 어린 공동체인 비전힐에서 가장 나이가 많기에 마지막으로 셀리더를 하며 제가 언니 오빠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혜를 나누고 드림힐로 올라가야겠다는 조금은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비전힐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곧 대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상반기에 대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시기였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에 사역을 멈추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취업의 불합격 소식과 너무 바쁜 일상으로 점점 저의 마음은 좌절감과 조급함으로 가득해져 주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제가 해야 하는 일들만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더라는 역할이 있었기에 책임감

으로 매주 토요일 리더 모임에 나오고, 주일예배를 집중해서 들으며 메마른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삶이 나의 손에 있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리더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세상의 고단함에 지쳐 주님께 나아올 힘도 없이 신앙을 내려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올해,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이 시기에 저를 리더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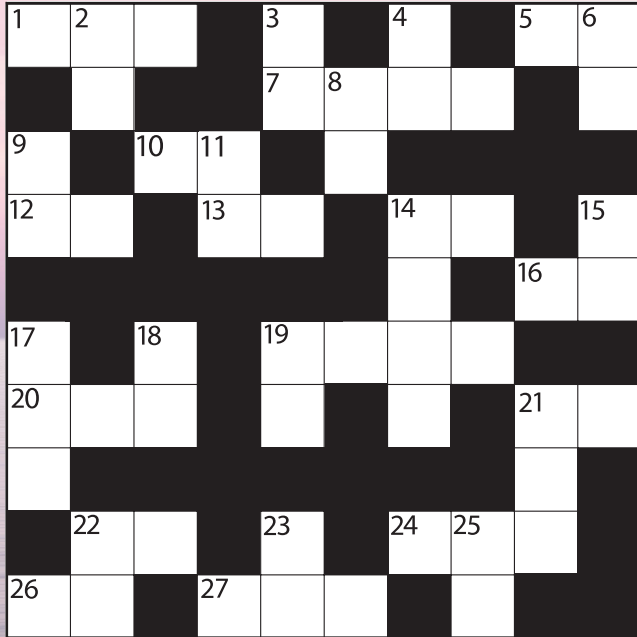
리더는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도 토요일 리더 모임, 주일 설교, 그리고 셀모임까지 총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셀원들에게 나눌 말씀과 찬양으로도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두시고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자리로 불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섬기기 위해 나아온 자리에서 주님의 섬김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번에는 귀한 동역자들까지 보내주셔서 받은 은혜를 매주 셀모임 시간에 따끈따끈하게 나누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더 찾고 더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리더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강현서 청년 / 청년부 30기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오바다 편

이번 호는 <오바다> 편입니다. <오바다>의 저자는 기원전 9세기 무렵의 선지자 오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으로 단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를 담았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7호 '아모스' 편 정답



가로 힌트

1. '여호와와 종'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라는 뜻의 이름.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을 지은 선지자이다. (욥 1:1)
5. 굴곡이 크지 않고 평평한 땅. 성경에서는 대개 블레셋 평원과 유다 산악지 사이에 위치한 구릉지대를 가리킨다. (욥 1:19)
7.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7km 정도 위치에 있는 성읍과 그를 둘러싼 지역을 말한다. (욥 1:19)
10. 겸손하지 않고 잘난체 하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욥 1:3)
12.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또는 그런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욥 1:5)
13. 같은 계통이나 종족에 속하는 사람. 가족보다 크고 민족보다 작은 범주를 말한다. (욥 1:17)
14. 아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의 형이다. (욥 1:6)
16. 괴롭고 어려운 상황.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말한다. (욥 1:12)
19. 벼, 보리, 밀과 같은 곡식에서 이삭을 떼어 낸 각각의 줄기. 이것을 묶은 것을 '짚단' 이라고 한다. (욥 1:18)
20.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언덕. 처음에는 작은 봉우리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점차 예루살렘 동쪽 능선 전부를 시온이라 불렀고, 후에는 예루살렘 전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욥 1:21)
21.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 '건조한 땅' 이라는 뜻이다. (욥 1:19)
22. 멸망하여 없어짐. 주로 멸망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이나 생물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뜻한다. (욥 1:9)
24. 수리과에 속하며 머리 주변에 깃털이 없는 맹금류. 용맹의 상징으로 흔히 쓰인다. (욥 1:14)
26.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은연중에 뜻을 나타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을 말한다. (욥 1:1)
27.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종교로 개종한 다른 나라 사람을 주로 뜻한다는 점에서 '이방인' 과 구분했다. (욥 1:11)

세로 힌트

2.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돌. 성경에서는 든든하고 안전한 거처나 바탕으로 흔히 묘사되었다. (욥 1:3)
3. 용맹스러운 군사. 또는 군사에 대적할 정도로 용맹한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욥 1:9)
4. 인체에서 눈, 코, 귀, 입, 두뇌가 있는 부분. 어떤 집단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욥 1:15)
6. 알아서 깨달음. 학교나 직장에 늦는 것도 이렇게 말한다. (욥 1:8)
8. 사람이 가진 생각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품성 등을 두루 뜻하는 말. "모든 것은 ○○ 먹기 달렸다" 라는 말이 있다. (욥 1:3)
9.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사람. 또는 그런 행위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욥 1:5)
11. 마음에 흡족한 상태. '불만'의 반대말이다. (욥 1:5)
14. 요셉의 아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낏과 낳은 둘째 아들이다. (욥 1:19)
15. 근심과 재난. 고통과 고민이 많은 여러 고난을 말한다. (욥 1:13)
17. 액체로 된 무엇인가를 입에 넣어 목을 넘기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욥 1:16)
18.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다윗이 뱀궂을 옮겨온 뒤부터 이렇게 불렸다. (욥 1:16)
21. 두 길이 만나 네 방향으로 갈라진 곳. '사거리' 라고도 한다. (욥 1:14)
22. 업신여김. 무엇인가를 하찮게 여기거나 대하는 것을 말한다. (욥 1:2)
23. 세상의 모든 나라. 여러 나라의 깃발을 나란히 걸어 놓은 것을 흔히 '○○기' 라고 한다. (욥 1:15)
25. 강제로 빼앗음.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국의 쌀과 금속을 이렇게 했었다. (욥 1:6)

총회장목회서신
기독교학교주일

2024년 8월 11일은 총회에서 정한 기독교학교주일이었습니다. 기독교학교주일을 맞아 교단의 기관지인 기독교공보에 실린 작년 107회기 총회장의 목회서신을 전제합니다. 특별히 기독교학교인 정신학원과 학원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기독교학교주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신학원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줄함울

정체성 잃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심 기도 요청

제107회기 총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시 50:5, 롬 12:1)라는 주제로 복음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실천하는 가운데 “기독교학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는 그동안 지켜오던 ‘기독교대학주일’(제99회 총회에서 제정)을 제107회 총회 결의에 따라 ‘기독교학교주일’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학교주일은 기독교대학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학교들이 본래의 기독교적 설립정신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학교는 468개교이며, 기독교대안학교 313개교를 합하면 781개교가 됩니다. 기독교 고등학교는 198개교로서 전체 종교계 사립고등학교의 79%를 차지하며, 기독교 대학도 전체 종교계 사립대학 중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교단에 속한 기독교학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우리 교단이 기독교학교에 대해 큰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기독교학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학교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사역의 한 분야입니다. 제92회(2007년) 총회에서 결의한 ‘기독교학교교육현장’에서는 “교회는 기독교학교를 지원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일군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옆의 학교’를 강조하였으며,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1교회 1학교 운동’을 통해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주중학교’를 세웠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기독교학교는 다음세대 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교회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로 들어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세대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학교가 바로 선교지이며, 기독교사와 교수는 그 속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기독교학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독교학교에서 교육과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사 임용권, 등록금 책정권, 사학법인 구성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평준화 정책, 개정 사립학교법, 국가교육과정, 사학공영화 정책 등에 의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학교가 본래의 건학이념을 잘 구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학교 구성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비리 없이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기독교학교가 국·공립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기독교적 설립정신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 주일을 맞이하여 기독교학교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각 지역의 기독교학교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곡된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는 일과 건강한 사립학교 제도와 정책 구현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기독교학교주일을 맞아 모든 섬기시는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468개 기독교학교 교사와 학생,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순창

교회일정

8/28(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8교구)
8/30-31(금-토)	하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9/1(주일)	성찬주일
9/4(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2학기 개강

알립니다

- 2024년 하반기 겨자씨인도자수련회**
일시 : 8/30(금) 오후 7:00 중예배실(지하)
대상 : 겨자목, 겨자체, 겨자씨인도자, 권찰
강사 : 강동진 목사(보은예수마을 대표)
- 전교인 신앙특강(주제 : 소그룹)**
일시 : 8/31(토) 오전 10:00 중예배실(지하)
대상 :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강사 : 주현신 목사(과천교회 담임)
- 마더와이즈 8기(동행편) 모집**
대상 : 주님의교회 여성 성도(선착순 30명)
신청기한 : 8/20(화)까지
방법 : 포스터 QR, 홈페이지 ‘알립니다’ 게시판 링크
문의 : 이윤경 목사(010.9267.3582)
- 청년부 여름수련회**
일정 : 8/23-25(금-주일)
장소 : 로뎀힐링타운
- 의료선교부 해외 의료선교**
일정 : 8/24-27(토-화)
지역 : 필리핀 몬탈반
- 어와나 2학기 오픈**
일시 : 8/31(토)

모집합니다

- 전화상담부 전문코치 봉사자**
문의 : 박동진 안수집사(010.8970.5952)
- 살롬찬양대 남성파트(테너, 베이스) 대원**
문의 : 김은희 권사(010.5093.8577)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